“내 안의 위대한 주인공을 만나다”

8월 6~9일, 부산불교박람회
한마음선원 부산, 마음 치유
‘마음굴림’ 부스, 1:1 상담 진행
고민 카드로 MZ세대 눈높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마음굴림’ 부스를 진행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과 봉사자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밝은 미소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요즘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진행하는 선생님이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터졌어요.”

8월 6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린 ‘2026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 과거 어르신들의 정적인 종교 행사로 여겨졌던 불교박람회가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힙(Hip)한 마음 치유의 장’으로 탈바꿈한 가운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운영한 ‘마음굴림’ 체험 부스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춰 세우며 호응을 얻고 있다.

“몸 · 감정 · 관계의 번뇌를 굴리다”

‘마음굴림’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핵심 가르침인 ‘주인공(내 안의 진실한 근본)’에 번뇌와 아픔을 맡겨 쉬게 하고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마음공부법이다. 부스는 약 15분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4단계 맞춤형 코스로 기획됐다.

방문객들은 안내존에서 ‘내 마음의 위대함’을 주제로 한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마음의 근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체험존으로 이동해 현재 자신의 내면을 가장 괴롭히는 주제인 ‘몸·감정·관계’ 카드 중 하나를 선택했다. 마치 타로카드처럼 자신의 고민을 투영한 카드를 고른 방문객들은,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대행 스님 법문을 바탕으로 친근하게 제작한 쇼츠(Shorts)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핵심은 세 번째 단계인 ‘함께 나누기’이다. 영상을 시청한 후, 마음굴림 코치들과 1:1로 마주 앉아 10분간 내면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깊은 대화의 시간이 주어졌다. 체험을 모두 마친 방문객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안의 위대한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는 ‘주인공 단주(염주)’가 선물로 전달됐다.

“내 안에 가장 든든한 주인이 있다”

마음굴림 부스 곳곳에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의 순간들이 이어졌다.

입시 중압감에 짓눌려 부스를 찾은 한 고3 수험생 김진서(가명) 학생은 마음굴림 선생님의 깊은 공감에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학생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진짜 내 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시험장에 내 안의 ‘주인공’을 먼저 보내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조언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미소를 되찾았다.

특히 이번 ‘마음굴림’ 부스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한 봉사자들의 내적 성장에도 자양분이 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아리회 소속 장양경 보살은 “박람회 참가 1회 차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불교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3회 차를 맞은 올해는 방문객은 물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스스로도 지혜로워지고 단단해지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스의 마스코트인 비니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도 방문객들에게 주인공의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청년과 시민들이 지친 마음을 온전히 쉬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은 프로그램의 핵심이 ‘내 마음의 위대함’과 ‘주인공’에 있다고 강조했다.

혜벽 스님은 “우리는 모두 소를 타고 있다는 말처럼 내 안에 위대한 에너지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 마음을 끌어 쓰거나 스스로를 믿기 어려워한다”며 “하지만 그 위대한 마음을 ‘주인공’이라 이름 짓고 친구처럼 친근하게 부르며 다가갈 때 그 에너지가 온전히 전해지고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고 고민 덩어리인 내 마음을, 내 안의 근본이 되는 큰 한마음에 굴려서 지혜롭고 밝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굴림’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전했다.

부산 동명불원, ‘문화치유명상학교’ 개원

9월 6일, 동명불원서 개원
시민 위한 마음힐링의 도량



동명불원은 오는 9월부터 ‘문화명상치유학교’를 개원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부산 도심 포교당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원장 마가 스님, 이하 동명불원)이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선보인다.

동명불원은 8월 12일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개강하는 ‘문화치유명상학교’의 세부 운영 계획과 사찰 활성화를 위한 8대 실천 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치유명상학교’는 불교의 전통 수행과 현대적 심리 치유 및 명상을 조화롭게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종교적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자율보시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각 과목별 30명이며 접수는 동명불원 종무소 방문 또는 전화(051-626-4337)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요 강좌로는 △선명상(원장 마가 스님, 월요일 오후 2시·저녁 7시) △경전학교(이욱태 이사, 화요일 저녁 7시·금요일 오후 2시) △꽃꽂이 마음 꽃피우기(목요일 오전 10시) △만다라 치유명상(수요일 오후 2시) △염불 노래명상(금요일 오전 10시) △AI 사진 테라피 명상(조명웅 강사, 목요일 오후 2시) △요가 명상(김한순 강사, 수요일 오후 7시) △웃음치유명상(정분남 강사, 목요일 오후 7시) △니까야 강독과 호흡명상(김근중 강사, 금요일 오후 7시) 등이 운영된다.

이외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을 위한 세대별 법회를 비롯해 원장 스님과의 차담, 평화 걷기명상(일요일 오후 2시) 등이 마련된다.

마가 스님은 아울러 동명불원의 창건주 고(故) 강석진 회장의 ‘충효(忠孝)’ 정신을 계승하고 도심 사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8대 실천 사업’도 공개했다.

먼저 종교의 문턱을 넘은 ‘문화치유명상학교’를 필두로, 사찰 내 숨겨진 자연 공간에 일곱 차크라를 활용한 1인용 ‘마음치유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온전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지역 대학생과 유학생에게 밥 한 끼를 전하며 고민을 듣는 ‘청년 밥심’과 홀몸 어르신들의 애환까지 위로하는 ‘상담 결합형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철야 정진 ‘자비도량참법기도’도 신설한다. 또 인근 평화공원에서는 매주 ‘평화 걷기 명상’이 진행되며, 특히 오는 9월 1일에는 자비명상을 수행하는 스님 30여 명과 함께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쟁 종식을 호소하는 평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 ‘효(孝) 문화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부산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주축으로 한 ‘리더스 명상 모임’도 결성한다.

마가 스님은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수행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문화치유명상학교가 삭막한 도심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쉬어 갈 수 있는 온전한 치유의 공간이자, 점차 쇠퇴해가는 도심 사찰의 새로운 롤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서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 ‘오방오제위도’ 문화유산 된다


경상남도가 8월 5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 사진 제공=경상남도

18세기 불화 연구 핵심
희소성 · 예술성 인정받아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통도사 서축암의 불화들이 경상남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경상남도는 8월 5일 ‘양산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와 ‘양산 통도사 서축암 오방오제위도’를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청의 유교 유산인 ‘열부 포산곽씨 정려 현판 일괄’도 문화유산자료로 함께 예고됐다. 이번 지정 예고는 각 불화가 지닌 불교 미술사적 가치와 희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통도사 서축암 관음보살도’는 영조 6년인 1730년 화승 채인 스님이 조성한 수작이다. 보타락가산에서 관세음보살이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장면을 정병, 대나무, 청조 등과 함께 조화롭게 담아냈다. 당시 불화의 대가였던 의겸 스님의 화풍을 이으면서도 채인 스님만의 온화한 존상 묘사와 섬세한 붓터치가 돋보인다. 특히 하단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와 주체, 봉안 장소가 명확히 남아 있어 18세기 전반 관음보살도 연구의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예고된 ‘통도사 서축암 오방오제위도’는 숙종 38년인 1712년 화승 서총 스님이 그렸다. 사찰의 대표적 의식인 수륙재 중 오로단에 모셨던 의식용 불화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관장하는 다섯 방위의 제왕을 하나의 화폭에 모두 배치한 독특한 구도를 띠고 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예고한 3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8월 8일, 광주 나눔의집서
고 강일출 할머니 흉상 제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6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기억을 잇다: 함께하는 연대, 세계를 넘어’가 8월 8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의집 대표이사 세영 스님,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관열 경기도 광주시장, 경기도의원·광주시의원, 고(故) 강일출 할머니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8월 14일을 기념해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201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0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꾸준히 알리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해온 고 강일출 할머니의 증언과 외침을 기억하기 위한 흉상 제막식이 함께 진행됐다. 강 할머니는 2000년 도쿄여성국제전범법정 등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왔지만 끝내 사과받지 못한 채 지난 3월 28일 향년 98세로 별세했다.

세영 스님은 “할머니의 용기와 외침은 사회 곳곳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셨다”며 “나눔의집은 앞으로도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고 정성껏 추모해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우리의 목표는 연대다. 국가가 당당히 나서지 못한다면 시민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며 “연대의 목소리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크게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연대의 뜻을 모았다. 경기 광주=이현희 기자

삼광사, ‘사계미식 사찰요리강좌’ 모집

9월 2일 개강, 부산시민 대상
11월 경에는 ‘시식회’도 예정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차별화된 사찰음식과 약선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문화 보급에 나선다.

삼광사는 오는 9월 2일부터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계미식 사찰요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광사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직접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강의는 사찰요리 장인 김은정 강사가 맡았다.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평일 수·목요일과 주말인 일요일에 교차 강의로 진행된다. 장소는 삼광사 템플스테이관 조리실이며, 질 높은 실습 교육을 위해 각 강좌별 인원은 12명으로 제한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원서 접수는 현장에서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발우공양 △면 상차림 △약선음식 △전통병과 △시절 발효음식 △죽 상차림 등 총 6가지 테마로 나뉘어 각 2회씩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찹쌀귀리 연잎밥, 오미자 통들깨 들기름 비빔국수 등 각 테마의 대표 메뉴를 실습한다.

특히 11월 경에는 부산 시민들을 초청해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시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명상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

김해 불인사, 해피로드와
8월 7일 ‘미소명상’ 진행



김해 불인사(주지 송산 스님)는 8월 7일 경내 미소마당에서 ‘나에게로 떠나는 미소명상’을 진행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피로드가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주지 송산 스님의 지도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호흡과 감각, 마음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송산 스님은 “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여러 정보와 그로 인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을 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상은 특별한 장소나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호흡명상을 시작으로 차명상, 소리명상, 감사수용명상 등을 차례로 체험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BBS, 부산 동구에 ‘자비의 쌀’ 기탁

8월 12일, 동구청서 전달식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원허 스님)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BBS부산불교방송은 8월 12일 부산 동구청에서 자비의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방송 사장 원허 스님과 강철호 동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전달된 자비의 쌀은 동구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원허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시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